

한국어 표준발음법의 문제점*

김 상 준

동아방송대학 방송연예과

이호영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Problems in the Principles of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Sangjoon Kim

Division of Broadcasting and Arts

Dong-Ah Broadcasting College

E-mail : kimsj@dabc.ac.kr

Ho-Young Lee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hylee@snu.ac.kr

I. 머리말

문화관광부가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펴낸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어는 2002년 말 기준으로 사용 인구수 약 7,500만 명으로 세계 13위에서 15위 정도에 해당하는 주요 언어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국어학습 열기가 확산 추세에 있다.

세계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는 문화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모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 더구나 언어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어정책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정부는 국어 발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했다. 또한 KBS 등 주요 언론사와 정부기관 등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어 능력 검정은 한국어의 단순한 지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시대에도 온 민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국어로

다듬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집약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말과 표준발음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서울말과 발음을 뜻한다. 전국민의 공통어적인 표준말이 없고 지역 방언이 난립하는 것은 마치 도량형의 기준이 없어서 지역마다 길이와 무게의 척도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악보를 놓고 연주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으로 연주하는 혼란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악보는 철자법으로 쓰인 글말이요, 실제로 연주된 음악은 발음된 소리말에 견주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새로운 표준어 규정이 공포될 때까지 우리말 사용의 척도가 된 것은 1936년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공포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었다. 1936년 당시 표준어를 사정할 때는 표준 발음법을 정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동안 국어사전들이 각기 달리 발음을 정하고 있어 국어교육에서는 발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누누이 지적됐었다. 1988년 1월 19일 당시 문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어 규정 중 표준발음법은 우리 국어사상 획기적인 어문정책의 시발점이었다.

문자언어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문법은 15세기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인쇄매체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늘어나면서 발달했

* 이 논문은 이현복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1996년에 발간한 『음성학과 언어학』에 발표한 김상준의 “한국어 표준발음법에 대한 고찰”을 재구성한 것임

고, 음성언어의 규범인 발음법은 20세기 초 전파매체의 발달과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발전해 왔다고 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7년 첫 방송이 등장하고, 6년 후인 1933년에 한글맞춤법, 1936년에 표준어 모음이 나왔으며, 1988년에는 방송의 발전된 형태인 뉴미디어의 발달에 맞춰, 개정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고시되었고, 새로 음성언어의 규범인 표준발음법이 고시됐다.

우리말의 일상 언어는 아직도 표준발음법의 준수와는 요원하게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방송언어에서는 전문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완벽한 방송언어를 지향하면서 표준발음법을 근거로 삼기 위해 교육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일상 언어에서는 우리말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면서 정착 원고화한 말을 음성언어화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특히 음운이 첨가된 발음은 일상 언어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다가도 오히려 마이크 앞에서 틀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988년에 표준발음법 중 모음체계, 장단음 규정의 일부, 합성어 중 ‘ㄴ+ㄹ’ 형태의 말이나 사이시옷이 붙은 말의 발음, 그리고 표준어 사정원칙과 발음법의 괴리현상 등 몇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 고시한 지 20년이 가깝기 때문에 음성언어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자와 표준발음법의 활용이 많은 방송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모음체계의 재검토

표준발음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음의 발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 나오는 단모음 ‘ㅏ’의 발음은 표준발음에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말 표준발음에서 ‘ㅏ’의 긴소리는 [ʌ]가 아닌 [ə:]의 긴소리요, ‘ㅓ’의 긴소리는 [jʌ]가 아닌 [jə:]의 긴소리이다.[2] [ʌ]와 [ə:]의 분류는 기존 발음사전에 두루 반영되고 있다.[3]. [3]에는 일러두기에 단순

모음의 음소를 9개로 분류하고 길이의 운소가 결합된다고 했다. 단순모음 9개는 다음과 같다.

모음: 이 에 애 아 어 오 우 으 어
 IPA: i e ε a ʌ o u u ə
 [4]와 [5]에서는 정부에서 고시한 단모음 10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ʌ]와 [ə]음을 분리해서 다뤘다.

모음: ㅏ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ㅣ
 IPA: a ε ʌ/ə(:) e o ø u y u i

이상의 단모음의 발음을 위한 모음사각도를 [6]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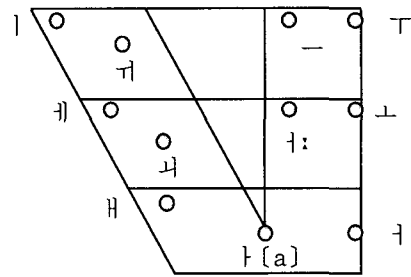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 모음 사각도

위 모음사각도에서 중고모음 ‘ㅓ:[ə:]’는 표준발음법의 본 조항에는 없으나 표준어 규정과 함께 발표된 ‘표준어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7] 이렇게 현실적으로 발음이 되고 각종 발음 관련 이론서에서 지적한 우리말 ‘어’의 중고모음이 발음법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표준어 해설에 후설평순모음이면서 중모음인 ‘ㅓ’의 긴소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발음의 폭을 넓힌 사실이다. 표준어 해설에는 단모음 외에도 이중모음 ‘ㅓ’의 경우에도 중고모음 [jə:]의 음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말 모음체계에서 단모음으로 분류한 ‘ㅓ·ㅕ’도 언젠가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현실음에서는 ‘ㅓ·ㅕ’가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제4항 [붙임]에 ‘니, 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이중모음으로 분류하면 혼란이 덜해질지도 모른다.

분석연구[분성년 : 구]	사무총장[사 : 무총 : 장]
예방주사[예 : 방주 : 사]	일석이조[일써기 : 조]
재삼재사[재 : 삼재 : 사]	

Ⅲ. 장단음 규정의 문제

표준어의 장단음은 표중발음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6항의 ‘다만’ 항에서 합성어의 경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분명한 긴 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예시어는 ‘반신반의, 재삼재사’만 예를 들었다. 그리고 해설서에서도 어느 정도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첩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만 예를 들어 여타 합성어의 둘째 형태소에서 나는 장음의 폭을 제한하여 문제가 있다. 해설서에서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선남선녀(善男善女), 전신전화(電信電話) 등만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 합성어에서 2음절+2음절 혹은 2음절+3음절 등의 말에서 둘째 형태소의 장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말이 많다. [4]와 [5]에는 합성어의 둘째 요소가 되는 낱말의 첫음절이 긴 모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뒤, 예시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무총장(事務總長)[사 : 무총 : 장]
 분석연구(分析研究)[분성년 : 구]
 일석이조(一石二鳥)[일써기 : 조]

[4]는 ‘1+1’ 유형이나 ‘1+2’ 유형은 제외하고 ‘2+2, 2+3’ 유형의 합성어에서 장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신반의, 재삼재사’처럼 같은 음이 중첩된 첩어 형태의 합성어뿐만 아니라 장음이 명백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본디 소리처럼 장음을 인정하거나, 반장음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6항의 ‘다만’ 항에 다음과 같이 합성어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 소리를 인정한다. 대학야구[대 : 향냐 : 구] 반신반의[반 : 신바 : 니]
--

Ⅳ. 모음의 발음 중 ‘레’의 발음

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2’의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은 이중모음인 ‘계, 메, 폐, 헤’의 단모음화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발음에서 ‘ㄹ’음도 발음의 난이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레’의 경우에 ‘상견레, 경레, 장레’ 등에서 ‘ㄹ’은 구개음 ‘ㄴ[n]’으로 소리 나고*, ‘결레, 실레, 선레’ 등은 구개음 ‘ㄹ[ɺ]’로 소리 난다. 그리고 이때 모음은 이중모음 ‘ㄱ’로 소리 난다.

그러나 ‘가레, 의레, 사례, 차레’와 같은 발음은 이중모음 [레]로 나지 않고, 단모음 [레]로 소리 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간과하고, ‘계, 메, 폐, 헤’만 단모음으로 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제5항 다만 2’는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제안한다.

다만 2. ‘계, 메, 폐, 헤’의 ‘ㄹ’은 [ㄱ]로도 발음한다.	
계집[계 : 집/계 : 집]	계시다[계 : 시다/계 : 시다]
시계[시계/시계]	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 택/혜 : 택](惠澤)	지혜[지혜/지혜](知慧)
다만 3. 모음 아래의 ‘레’는 [레]로도 발음한다.	
가레[가레/가레](嘉禮)	의례[의 : 레/의 : 레](儀禮)
사례[사 : 레/사 : 레](事例)	차례[차례/차례](茶禮)

Ⅴ. ‘ㄴ+ㄹ’발음 중 예외 규정

표준발음법 제20항은 소리의 동화로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동화되어 발음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 구개음 ‘ㄹ’의 음성기호는 [ɺ]에서 [nɺ]로 하고, 구개음 ‘레’는 [ɺjel]로 표기하고 있다. ‘상견레, 경레, 장레’등을 [상견네, 경 : 네, 장 : 네]로 발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견네, 경네, 장네]로 발음하는 오류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레]의 발음이 자음이나 모음을 불문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 어렵기 때문에 ‘레’로 바꾼 뒤 구개음 ‘ㄴ[n]’이 아닌 설단음 ‘ㄴ[n]’으로 발음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1) 광한루, 대관령의 예외규정

제20항 (1)은 한자어의 경우이고 (2)는 합성어 또는 파생어의 경우와 ‘-ㄹ(으)리는지’의 경우이다. (1)에서 ‘난로, 신라, 천리’와 같은 말은 자음동화 된 발음으로 [날로, 실라, 철리]로 발음하여 [ㄹㄹ]로 했으며, (2)에서 ‘칼날, 물난리, 줄넘기, 할는지’를 역시 [ㄹㄹ]로 발음함을 인정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음동화의 예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1)의 ‘광한루’와 ‘대관령’은 발음은 비록 [광 : 할루, 대 : 괄령]으로 하더라도 (1)에 포함해서 ‘원칙’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붙임]이나 ‘다만’항으로 넘겨서 예외규정으로 해야 한다.

‘광한루’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누각(樓閣)이다. ‘광한루’가 [광 : 할루]로 소리 나는 어형은 현대어에서는 거의 모두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 있는 형태이다. 비슷한 어형을 가진 ‘누각’은 별로 없지만 중국 음식점에서는 아직도 많이 보인다. ‘동순루(東順樓), 동신루(東信樓)’ 등의 음식점들이 그 예이다. 이 경우의 발음은 [동술루, 동실루]가 아니라 [동순누, 동신누]로 발음하고 있다.

[ㄴ·ㄹ]어형이 [ㄹ·ㄹ]로 소리 나는 것은 단일어 혹은 단일 형태소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복합어에서는 자음동화일지라도 절음법칙의 영향을 받아 [ㄹ·ㄹ]어형이 아닌 [ㄴ·ㄴ]어형으로 소리 난다.

마찬가지로 ‘대관령[대괄령]’도 관례에 의해 굳어진 말일뿐이다. 현대어에서 ‘ㄴ’ 아래 ‘-령’ 어형은 [ㄹㄹ]이 아니라 [ㄴㄴ]으로 소리 나는 것이 원칙이다. 재 ‘령(嶺)’에 해당하는 ‘홍안령’은 [홍알령]이 아니라 [홍안녕]으로 발음한다. 영토라는 의미의 ‘령(領)’에 해당하는 대만령<대만의 영토>는 [대말령]이 아니라 [대만녕]으로 발음하며, 일본령<일본의 영토>는 [일불령]이 아니라 [일본녕]이다. 이것은 제20항 <다만> 항에 있는 동원령을 [동월령]이라 하지 않고 [동 : 원녕]이라 발음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렇다면 광한루와 대관령은 제20항의 (1)에서 분리하여 맨 끝으로 넘겨 <다만>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천리, 만리의 발음

표준발음법 제20항 (1)의 ‘천리’도 단순히 처리할 수 없는 말이다. ‘삼천리, 천리만리, 구만리’ 등이 [삼철리, 철리말리, 구말리] 등으로 굳어진 발음이긴 하지만, 현대국어의 발음으로 예외로 돌려야 한다.

서울 주변의 지명인 ‘당인리, 일산리, 화전리’는 [당일리, 일살리, 화철리]가 아니라, [당인니, 일산니, 화전니]로 발음되고 있음을 보면 ‘천리’의 발음 [철리]는 예외규정으로 돌려야 한다. ‘천리’의 ‘리(里)’는 거리의 단위이며, ‘당인리’의 ‘리’(里)는 행정구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달리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20항의 <다만>은 항을 따로 분리하여 정리해야 하며, 그 항의 <다만>에 지명이 아닌 거리의 단위인 ‘천리, 만리, 삼천리’는 [철리, 말 : 리, 삼천리]로 하고, 건물이나 지명인 ‘광한루, 대관령’은 [광 : 할루, 대 : 괄령]으로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3) 선릉의 발음

‘선릉’의 경우는 ‘테헤란로, 한천로, 신촌로, 남부순환로’와 같이 절음을 취해 ‘선능’으로 발음해야 함에도 국립국어연구원의 유권해석이 달리 나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시절 선릉의 발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릉’은 ‘난로[날 : 로] 신라[실라]’처럼 [설릉]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1994년 2월 17일 지하철 공사에서 국립국어연구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에서 ‘선릉’의 표준발음은 [설릉]이라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996년 4월 25일 KBS한국어연구회에서는 지하철 공사에 대해 [선능]으로 발음하도록 회신한 바 있다. 이후 국어연구원에서 몇 개의 발음을 놓고 서울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선릉’의 경우는 [선능]이 표준발음이라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선릉, 현인릉, 연산군릉, 광해군릉’ 등도 연음

법칙을 무시하고, 절음법칙에 따라 ‘룽’이 아닌 ‘능’으로 발음하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연음으로 발음하면 [설룽, 현일룽, 연산굴룽, 광해굴룽]으로 현실음과 거리가 먼 발음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무덤을 일컫는 ‘룽’은 표기를 ‘능’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선룽’을 ‘난로’와 같은 계열의 조음구조로 혼동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발간된 [8]에는 ‘룽’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고 ‘능’만 올라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1997년 65세 이상의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20명의 제보자가 [선능]으로 발음하였고, 3명만이 [설룽]으로 대답했다고 한다.[9]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이긴 하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온 라인(on line), 이승만 라인, 문 라이트(Moon light), 선 라이트(Sun light), 원룸(one room)’을 일반적으로 ‘올라인’이 아니라 ‘온 나인’, ‘이승말 라인’이 아니라 ‘이승만 나인’, ‘물 라이트’가 아니라 ‘문 라이트’, ‘월룸’이 아닌 ‘원눔’으로 발음하는 현상도 참고해야 한다.

VI. 납량과 납양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각 방송사에서는 납량특집(納涼特輯)을 제작해서 방송한다. 이때도 현행 한글맞춤법의 표기원칙에 맞춘다면 ‘납량’이기 때문에 표기와 발음이 같음을 일으킨다. 이 말도 일반 언중들은 [남양]이 아니라 [나방]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납량특집 전설의 고향”

“납량특집 전설 따라 삼천리”

“납량특선 명화 감상”

이럴 때 대개의 경우는 표기는 ‘납량’으로 하고 있으나 발음은 [나방]으로 하는 것이 관용으로 돼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의 올바른 발음을 위해서나 합리적인 맞춤법을 위해서는 [나방]으로 발음하고, 표기도 ‘납양’으로 고쳐야 한다. 이 말은 원래 ‘납양’이었던

데 맞춤법에 맞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 ‘납양’이 아닌 ‘납량’으로 표기했고, 가능하면 표기한 대로 발음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납양’이라는 엉터리 발음이 나오게 된 듯하다.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어발음사전들 중에서 [4]는 [나방]이라는 단일 발음을 제시했고, 나머지 사전들은 [남양]과 [나방] 둘 다 인정하는 복수발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ㄴ’이 초성에 오거나 중성에 올 경우에 표기와 발음에 혼란이 있는 것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우리 맞춤법처럼 ‘ㄴ’ 표기를 피하는 두음법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의 발음표기에서 오히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첫음절에서는 ‘락원, 량심, 료리, 리발’ 등으로 표기하면서, 용마루는 ‘룽’이 아니라 ‘용’으로 표기하고 있다.

둘째 음절의 경우 한국어에서 ‘규율’로 표기하는 것을 북한은 ‘규률’로 표기한다. 이럴 경우 북한의 발음은 당연히 [규률]이라야 하는데 북한 사전의 발음표기는 [규율]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열’은 ‘대렬’로 표기하고 발음은 [대열], ‘배열’은 ‘배렬’로 표기하고 발음표기는 [배열]로 하고 있다.[10]

이것은 북한도 발음의 편의성과 대중성, 관용성을 고려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남한의 언어규범에서도 참고해야 한다.

VII. 피란(避亂), 피랍(被拉)의 발음

‘피란(避亂), 피랍(被拉)’도 일상 언어는 ‘피난, 피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역지로 ‘란, 랍’을 살려서 표기하거나 발음하도록 언중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발음사전에서도 [피 : 난, 피 : 납]을 채택한 곳이 많고, ‘피난(避難)*’과 ‘피란(避亂)**’의 뜻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난을 피하거나 난리를 피하는 것을 굳이 구분할 것

* 피난(避難):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감.

** 피란(避亂):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

이 아니라 ‘피난’ 하나로 묶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말 2음절 복합어에서 고유어 ‘갱엿, 밤웃’과 같은 경우는 음절경계에서 절음이 적용되고, 음운의 첨가현상이 명백하게 일어나 [갱녠, 밤:눈]으로 발음한다. 한자어는 ‘선릉(宣陵), 신역(新驛)’과 같은 경우에 연음이 적용되지 않고 절음이 적용되면서 [선능, 신녁]으로 발음된다. 마찬가지로 ‘납량, 피란, 피랍’은 2음절 단일어처럼 보이지만 복합어적인 요소가 강하다.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납량(納涼)→‘량[양]’을 납하다(더위를 거두다).
피란(避亂)→‘란[난]’을 피하다(회피하다, 벗어나다).

피랍(被拉)→‘랍[납]’을 피하다(납치됨을 당하다).

2음절 단일어이지만 음절 단위로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복합어처럼 인식하여 둘째 음절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면서 [나방, 피:난, 피:납]으로 발음했을 것이다. 이것은 언중들의 지혜로운 언어생산, 즉 조어(造語)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맞춤법에 맞춰서 표기와 발음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VIII. 동구릉(東九陵), 서오릉(西五陵), 태릉(泰陵)의 발음

일반적으로 많은 언중들이 ‘태능, 동구능’이라 하는데, 한글맞춤법에 ‘동구능’이 아니라 ‘동구릉’이라 했기 때문에 발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태릉’도 문제가 많다. 현행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태릉’으로 표기하고, 그렇게 발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상 언어가 ‘태릉’으로 표기했다더라도 [태능]으로 발음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태능’과 함께 ‘선릉, 헌인릉, 연산군릉, 광해군릉’ 등도 연음법칙을 무시하고, 절음

법칙에 따라 ‘릉’이 아닌 ‘능’으로 발음하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연음으로 발음하면 [설릉, 헌일릉, 연산굴릉, 광해굴릉]으로 현실음과 거리가 먼 발음이 되고 만다.

또한 ‘태릉’처럼 2음절어는 혹시 ‘능’이 아닌 ‘릉’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서오릉, 동구릉’에 이르면 발음이 더욱 어려워진다. 발음사전으로 비교적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은 표제어를 아예 ‘동구능, 서오능, 태능’으로 올려놓고 있다.

‘태능’은 ‘당인리, 신천리’와 같은 동네 이름과 같은 계열의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을지로, 종로’와 같은 거리 이름과 같은 계열도 아니다. 접미사나 불완전명사인 ‘리(里), 로(路)’와 완전명사인 ‘능(陵)’은 전혀 별개의 기능을 한다.

‘리’는 ‘이(里)’가 어말에 올 때의 어형으로 거의 독립성이 없는 의존명사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로(路)’도 접미사로 분류될 정도로 독립성이 거의 없는 말이다. 그러나 ‘능(陵)’은 임금, 왕후 등 왕족의 큰 무덤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완전한 명사로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무덤을 일컫는 ‘릉’은 표기를 ‘능’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선릉’을 ‘난로’와 같은 계열의 조음 구조로 혼동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발간된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발행 국어대사전, 어문각 발행 우리말 큰사전)에는 ‘릉’이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고 ‘능’만 올라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문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2음절어의 복합어적인 성격을 가진 단음절어도 엄격하게 선별하여 두 번째 형태소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첫음절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태릉’의 경우는 국내에서 발간된 모든 발음사전에서 [태릉]이 아니라 [태능]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음법으로 해결하거나 한글 맞춤법에 추가해서 표기를 고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한글맞춤법 제12항은 ‘ㄹ, ㄴ’ 두음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2항 붙임 1’에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는 규

정에 들어있는 동구릉(東九陵)을 비롯해 ‘서오릉, 태릉’은 물론이고 ‘선릉’까지 ‘붙임 2’에 추가하면 된다.

‘붙임 2’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이다. 여기에는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추가할 것으로는 ‘누누히(屢屢-)’도 있으며, ‘적나라(赤裸裸)’도 여기에 추가해서 ‘적나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IX.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의 발음

발음법 제30항은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0항의 (1)에 문제가 있다. (1)에 대해 표준어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이시옷이 표기된 경우의 그 발음에 대한 규정이다. 이 발음규정을 정함에는 논란이 극히 심하였다. 예컨대 ‘넷가’의 발음을 [넛 : 까]로 할 것인가 [내 : 까]로 할 것인가, 또 ‘깃발’의 경우 [깁빨]로 할 것인가 [기빨]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빨]은 [깁빨]→[깁빨]→[기빨]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깁빨]을 표준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기빨]과 [깁빨]을 모두를 표준발음으로 허용하게 하였다. [깁빨]은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발음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표준발음법 제21항에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음동화변화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21항의 ‘꽃밭[꼰밭](×[꺄밭])’과 제30항의 ‘깃발[기빨/깁빨] 대팻밥[대 : 패팍/대 : 뽕팍]’은 같은 음운변화를 거친다. ‘깃발[기빨/깁빨] 대팻밥[대 : 패팍/대 : 뽕팍]’의 발음을 인정한다면 ‘[기빨] [대 : 패팍]’은 ‘[깁빨] [대뽕팍]’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비슷한 유형으로 ‘기쁘다, 나쁘다, 가쁘다, 바쁘다, 새끼, 어깨’ 등의 발음이 있다. ‘[기쁘다/깁쁘다, 나쁘다/납쁘다, 가쁘다/갑쁘다, 바쁘다/뽕쁘다, 새끼/색끼, 어깨/억깨]’ 유형의 발음이 음절단위가 아닌 대화나 낭독의 자연스런 속도에서는 복수 발음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깃발, 대팻밥’은 첫음절이 ‘ㄷ’받침 계열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음이 ‘ㄷ, ㅅ, ㅈ, ㅊ, ㅌ, ㅎ’ 등이 아닌 ‘ㄱ, ㅂ, ㅃ, ㅍ’ 계열의 소리가 오면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ㄷ]받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기빨, 대 : 패팍]은 당연히 역행동화가 일어나서 [깁빨, 대 : 뽕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깃발[기빨/깁빨] 대팻밥[대 : 패팍/대 : 뽕팍]’의 발음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서 ‘깃발[깁빨] 대팻밥[대 : 뽕팍]’의 발음만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발음은 사이시옷뿐만 아니라 단일 형태소의 어휘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치다’와 ‘닫히다’, ‘어깨’와 ‘학교’, ‘급행’과 ‘급과’와 같은 말의 발음에서 뒷음절이 된 소리나 거센소리로 날 때, 앞 음절에서 수의적으로 발음될 수 있는 내과음을 표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치다, 닫히다[다치다/닫치다]’, ‘어깨[어깨/억깨]’, ‘학교[하교/학교]’, ‘급행[그행/급행]’, ‘급과[그과/급과]’처럼 복수발음을 인정해야 한다.

표준발음법 제30항의 (1)은 다음과 같이 양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와 첫음절이 [ㄷ]으로 끝나는 말은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ㅂ’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나 첫음절의 끝이 [ㄷ]으로 소리나는 경우.
 넷가[넛 : 까] 셋길[셋 : 길] 깃발[깁빨] 대팻밥[대 : 뽕팍]

(2)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경우는 된소리 발음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뽕팍들[뽕래뽕/뽕래뽕] 콧등[코뽕/콧뽕]
 햇살[해쌔/햇쌔] 뱃속[배쌔/뽕쌔] 뱃전[배전/뽕전]
 전깃줄[전 : 기줄/전 : 긴줄] 전봇대[전 : 보뽕/전 : 볼뽕]

X. 붙임표(-)의 표기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붙임표(-)를 쓰게 돼 있다. 이 붙임표가 국어연구소 발행 고시본 발음법 제7장 29항 [붙임2]의 <다만>항 ‘등용-문’에는 잘못 들어 있었다. 등용문(登龍門)은 후한서(後漢書)의 고사에서 나온 말로,

용문(龍門)은 중국 황하 상류의 급류를 이루는 곳으로 고기가 이곳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등용문’의 경우 등용-문으로 분리하면 발음이 ‘등룡문’이 된다. 그러나 용문을 오른다고 하면 ‘등-용문’으로 분리해서 발음도 ‘등용문’으로 되기 때문에 붙임표의 사용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1988년 고시본에서는 잘못이 있었으나 KBS한국어연구회의 지적 등으로 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한국 어문규정집에서는 바로잡았다. 붙임표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말에 공권력(公權力)이 있다. 이 말이 공적인 권력이라는 뜻이 있으면 ‘공-권력’이 되고 발음은 [공퀵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권’의 ‘힘’이라는 뜻이 있어서 ‘표준발음법 제20항’에서 발음을 [공편녁]으로 했다. 이때 붙임표를 붙인다면 ‘공권-력’으로 해야 한다.

XI. 표준어규정과 표준발음법의 갈등 해소

표준어규정 중 표준어 사정원칙 제7항에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고 규정한 뒤, 발음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암-수’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술’이었으며, 오늘날은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술’은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기에 되었고, 그래서 받침 ‘ㅎ’의 실현이 복잡하게 됐다. 그리하여 접두사 ‘술-수’의 처리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제7항의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는 발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2>에서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숫-’의 형태를 취하여, 숫양은 ‘순냥’, 숫염소는 ‘순념소’, 숫쥐는 ‘순쥬/수쥬’로 발음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 염소, 쥐’ 이외에 사이시옷이 없는 경우는 2중 발음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

맞춤법이나 표준어 사정원칙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발음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자칫 표기와 발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써놓은 대로 발음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게 된다. 그러나 표기와 발음은 일치할 수도 없고, 일치할 필요도 없다. 표기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발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어문규범도 이 부분에서는 표기와 발음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와 발음을 절충하고 있다.

아래웃이[- 운니] 아래이[- 랜니]
웃이[운니] 웃이폼[운닌 -]

우리는 ‘이’를 ‘니’로 표기를 바꿔 ‘아랫니’로 맞춤법을 고시했다.

이렇게 소리의 첨가를 인정하여 표기에 사이시옷을 넣거나 뺀 경우는 발음법에 첨가해야 한다. 새로운 규범이 고시되기 이전인 1984년에 간행된 [3]에는 사이시옷을 넣고 발음도 경음이나 음운첨가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숫나사[순나사] 숫놈[순놈] 수사돈[숫싸돈]
숫소[숫쏘] 숫은행[수든행]

위의 발음표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숫사돈[숫싸돈] 숫소[숫쏘]’는 잘못된 표기이다. 우리말에서 받침소리는 모두 일곱 개만 인정했기 때문에 ‘ㅅ’받침 소리는 ‘ㄷ’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수’ 접두사의 ‘ㄴ, ㄷ’첨가를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제__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 ‘수’ 다음에는 음운을 첨가해서 발음할 수 있다.		
1. ‘ㄴ’ 음을 첨가하는 경우		
수나사[순나사]	수놈[순놈]	수연어[순연어]
수영양[순녕양]	수잉어[순녕어]	숫염소[순념소]
2. ‘ㄷ’ 음을 첨가하는 경우		
수사돈[숫싸돈]	수사슴[숫싸슴]	수사자[숫싸자]
수소[숫쏘]	수조개[숫쫂개]	수짐승[숫쥼승]
숫쥐[숫쥬]	수황새[숫황새-수황새]	

외국어의 경우에도 표기는 바뀌더라도 발음은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말도 표

기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발음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언어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기와 발음의 조화를 이루는 말에 해님의 발음을 ‘헨님’으로 한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XII. 결론

표준어와 표준발음의 보급과 사용은 미룰 수 없는 민족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감정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민족화합은 물론, 곧 다가올 통일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들과 문자로 기록된 문헌이나, 음성자료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문자언어 중심에서 벗어나 표준발음 등 언어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한글전용이나 국한문자 혼용이나를 놓고 국력을 낭비한 경향이 많았다. 이제는 표준발음법 등 음성언어적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1988년에 고시된 표준어규정 중 표준발음법은 고시된 후 2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완 성격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의 방향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현행 표준발음법을 근간으로 해서 일부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이다. 우리말 맞춤법은 변화 없이 유지하고 발음법에서의 변화만을 인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11] 학계 일각에서는 표준발음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발음에 관해서는 표준발음법이 아니라 사전에 발음만 표기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정·고시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과 함께 표준발음법도 보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년 후인 2008년이면 표준발음법을 고시한지 20년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보완작업을 서두른다면 고시한지 2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9] 국립국어연구원, 새국어소식, 1998. 8.
- [7] 국립국어연구소, 표준발음법 해설, 1989.
- [8]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 1992.
- [1] 김상준, 방송언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6] 김상준, 표준한국어 발음과 낭독, 한국방송출판, 2005.
- [11] 김선철,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 발음법 모완 및 보급 활동”, 중부일보 12주년 기념 심포지엄 논문집 ‘한글발음 이대로 좋은 가’, 중부일보사.2003.
- [3] 남광우, 이철수, 유만근, 한국어발음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1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2] 율촌문고편찬위원회, 교사용한국어지침서, 1988.
- [5] 이주행, 이규항, 김상준, 표준한국어발음사전, 지구문화사, 1998.
- [4] KBS한국어연구회,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1993.